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성경 사사기 7:19-25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기드온의 군사들처럼 순종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은혜의 찬양 266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2 공중 나는 새를 보라(찬송가 588장)

-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 들에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말씀 읽기 사사기 7:19-25

-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 21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투라의 뽕 싹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뽕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뽕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 25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렐과 스웁을 사로잡아 오렐은 오렐 바위에서 죽이고 스웁은 스웁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렐과 스웁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본문 배경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기드온은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용사들을 선별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삿 7:3)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자, 이만 이천 명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만 명의 백성을 보신 하나님은 여전히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서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물가로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자, 삼백 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었으며 다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삿 7:6) 하나님은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삼백 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모였는데,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꿈 꾸,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장막을 쓰러뜨린다는 꿈을 그의 친구가 해몽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린 보리떡이 기드온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해몽을 듣고 하나님

을 찬양하고, 용사 삼백 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공격합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들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들어 불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삿 7:20). 미디안의 군사들은 기드온과 삼백 명의 기습에 놀라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본문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어떻게 싸웠나요?(19-22절)

답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는 나팔을 불고 향아리를 부수며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해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는 미디안과 싸움을 앞둡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에게 나팔과 횃불, 향아리를 듣게 합니다. 이들은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갠 한밤중에 적진에 숨습니다.(19절) 그리고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칩니다.(20절) 그러자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21절)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22절)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기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와 함께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 미디안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23-25절)

답 도망간 미디안을 추격하여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의 두 방백도 사로잡아 죽입니다.

해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로 인해서 미디안 군대는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며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간 미디안을 추격합니다.(23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 전령을 보내어 미디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요단강 나루들을 점령하게 합니다.(24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렘과 스웬을 사로잡아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2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승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적용

1 ‘미디안 군대’처럼 느껴지는 문제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그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우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암송

3-3 기드온이 그 꿈과

사사기 7장 15절



작곡 조미진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경배하며

3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5 여호와께서 - 미디안과 그 모든 - 진영을

7 너희 손에 -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

9 사사기 칠장 - 십오절 아멘 -

11 사사기 칠장 - 십오절 아멘 - 예!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려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